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An Analysis of National Library System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1 영국 국립도서관(BL) |
| 2. 국가도서관의 발전과 위상 | 3.2 독일 국가도서관(DEZ) |
| 2.1 국가도서관의 성립과 발전 | 3.3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
| 2.2 국가도서관의 핵심기능과 위상 | 3.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 |
| 3.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 4.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현재의 '완전 집중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문화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 구성을 정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기본모형, 운영체계 및 역할분담 모형, 자료보존센터 모형 등)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National librarie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ll publications issue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But national libraries vary widely in their origins and functions. In one or another form they are found in more than a hundr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backgrounds and theoretical informations to restructuring the completely centralized organizational framework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national library systems of four culturally advanced countries, that is, British Library, Die Deutsche Bibliothek,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National Diet Library are analysed with respect to the grounds of main library, regional libraries, departmental or subject libraries, branch libraries, and their mutual relation.

키워드: 국가도서관시스템, 영국국립도서관, 독일 국가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National Library System, British Library, Die Deutsche Bibliothek,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National Diet Library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6월 10일

1. 서론

일반적으로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하나의 통치조직을 가진 나라'를 지칭한다. 거기에 도서관을 후치시키면 국가도서관이 되는데 통상적 함의는 자국의 다른 모든 도서관에 대한 비교 우위성과 대표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의적 측면에서 보면 '설립·운영주체가 국가라는 보통명사로서의 의미'와 '자국을 대표하는 대명사로서의 함의'를 내포한다. 국내의 경우, 전자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대명사로서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정보자료를 수집·보존하여 당대에 제공하는 한편, 후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환언하면 국가도서관은 '수집자료의 포괄성 내지 망라성, 축적의 누적성과 통시성, 완벽한 보존성'을 중시해야 하며, 그 결과로 존재이유가 규정되고 지식정보의 국가적 보루라는 정체성이 배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은 그것의 설립근거와 사회적 책무를 법제와 행정체제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더라도 내재된 공리와 명제를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기란 쉽지 않고 게다가 수도에 위치하는 단일 건물일 때는 전국적으로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강국으로 회자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도서관이 반증하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수도에 위치하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복수의 주제관(분관)을 설치하여 국가도서관시스템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60년간 수도 중심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실정법이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즉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이용의 이용' 중에서 특히 수장공간의 확장성과 봉사대상의 전국성을 강조하는 '보존과 이용'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서울 집중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정부의 핵심 개혁메뉴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완전 집중형'에서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분산시스템 구성을 정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기본모형, 운영체계 및 역할분담 모형, 자료보존센터 모형 등)을 제시할 것이다.

2. 국가도서관의 발전과 위상

2.1 국가도서관의 성립과 발전

현존하는 각국의 국가도서관은 어떤 역사성과 궤적을 가지고 성립·발전하여 왔는가.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가 하나 또는 복수의 국가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 기원과 기능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나 영국처럼 19세기 이전에 왕실 문고를 모태로 설립된 소수의 국가도서관을 제

외하고는 '19세기 유럽 국가주의의 부산물' 내지 '20세기 강대국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물'로 등장하였을 정도로 그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것의 출현시기, 성립과정, 사회적 변천을 기준으로 조합하면 자연 발생형, 인위적 설립형, 개조·변용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연 발생형은 왕실문고로 존재하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국가도서관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인위적 설립형은 국가가 창설한 형태로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과거 대영박물관도서관(BML : British Museum Library)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개조·변용형은 개인장서를 모체로 하는 특정 도서관이 어떤 기회에 국가도서관으로 격상된 경우로 이탈리아의 국립중앙도서관(Biblioteca Nazionale Centrale)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설립된 시대를 구분기준으로 삼으면 다음의 3단계 발전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제1세대 국가도서관은 19세기 초까지 20개국 이상에 설립된 것으로서, 왕실문고와 개인장서를 기반으로 발전한 고전적인 국립도서관을 말한다. 이 세대에 속하는 국가도서관으로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BnF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480년), 영국의 BML (1753년), 미국의 의회도서관(LC : Library of Congress, 1800년)이 대표적이다.¹⁾ 이들은 당시 국가가 국위를 대외적으로 발양할 목적으로 창설한 경우가 많았으며, 납본제도를 의무화하여 자국의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자국의 문화기록을 보존

하는 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역할의 범위를 자료조직(전국서지 및 종합목록의 작성, 서지표준화), 전문가 양성까지로 확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제2세대는 19세기 중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약 50여개 나라에 설립된 국가도서관을 말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outh African Library(Cape Town, 1818년)와 State Library(Pretoria, 1887년), 베네즈엘라의 La Biblioteca Nacional(1833년), 튀니지의 Bibliothèque Nationale de Tunisie(1885년), 호주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1901년), 태국의 National Library of Thailand(1905년), 기타 남미의 많은 국립도서관이 여기에 속한다. 그 가운데 호주처럼 제1세대 국가도서관(의회도서관)을 답습하여 설립한 경우가 있고 독자적인 양태로 발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제2세대 국가도서관의 특징은 자관과 다른 도서관 및 정보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의 개발과 구축(국가서지, 국가종합목록, 전국상호대차)에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이나 정변으로 국가도서관의 목표를 변경하거나 강요당함으로써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하였다. 예컨대 남미제국의 국가도서관은 대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 설립되었는가 하면 구데타로 관장이 경질되고 혁명과 전쟁으로 건물과 자료가 소실되어 개축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튀니지의 Bibliothèque Nationale de Tunisie는 형무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Goodrum 1998, 580-592).

마지막으로 제3세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신흥국가에 설립된 약 20

1) BnF는 왕실문고를, BML은 H. Sloane의 개인장서를, LC는 T. Jefferson의 개인문고를 기초로 설립·발전하였다. 그 외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도 왕실문고에 기반하고 있다.

개의 국가도서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1945년),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 National Diet Library, 1948년), 중국의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 1949년), 캐나다의 National Library of Canada(NLC, 1953년), 가나의 Central Reference and Research Library(1964년), 뉴질랜드의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1966년), 리비아의 Bibliothèque Nationale(1966년), 말레이시아의 National Library of Malaysia(1971년) 등이다. 이들은 제1세대 국가도서관이 왕실 또는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장서를 바탕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과 달리,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계획·설립하고 통합시스템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LC의 영향을 받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기능을 겸하는 일본의 NDL이다. 대개 자국의 수도에 위치하는 제3세대 국가도서관은 지방의 도서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서지를 발간하며, 대출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국제기구(UN, WHO, Unesco, OECD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간행물의 기탁도서관이며, 자국 자료의 국제교환센터 및 외국자료의 수증기관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나의 국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출판센터, 문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겸하는 사례도 제3세대 국가도서관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바하마, 과테말라, 가나 등은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센터이고, 우간다·이디오피아·스리랑카 등은 대학에 부속되어 있으며, 리비아·튀니지아·말레이시아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출판센터를 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국가도서관(NLC)과 문서관(NAC)은

2004년 5월 21일에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지구상에 실재하는 대다수 국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영국·미국 등의 시스템을 모방하여 설립·발전하여 왔지만, 열강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자국의 국가형태, 정치체제, 행정체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강대국의 속령인 경우를 제외한 155개 국가도서관의 명칭과 성격을 분석하면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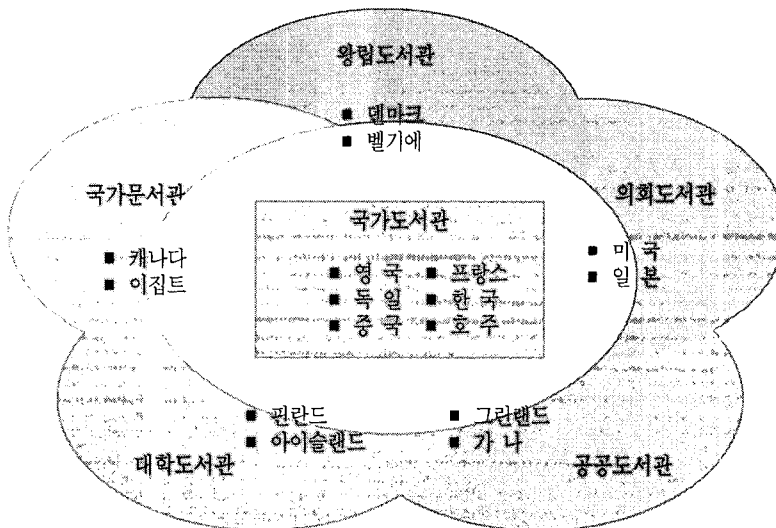
2.2 국가도서관의 핵심기능과 위상

국가도서관은 상술한 것처럼 성립과정이 상이하고 그 성격도 다양각색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전체 국가의 약 83%가 국가명과 도서관을 조합하여 공식명칭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도서관은 '국가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이고 정부예산으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자국의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도서관의 기본적인 지향성은 지나친 단순화가 초래할 위험과 오류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표 2>처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 내에서 생산된 지식정보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차원이다. 이 개념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전적 국가도서관에서 강조하며, 연구자 집단과 수집물(장서)의 보존·보호를 중시한다. 둘째는 도서관 및 정보인프라(국가적 조정, 시설과 설비, 리더십, 정보서비스 등)를 강조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표 1〉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 명칭

국가도서관의 명칭	국가수	비고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128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의회도서관(Congress, Diet, Parliamentary)	3	미국, 일본, 조지아
국가도서관 + 대학도서관	8	핀란드, 아이슬랜드, 보스니아 등
국가도서관 + 문서관	8	캐나다, 볼리비아, 이집트, 세네갈 등
국가도서관 + 공공도서관	2	그린랜드, 가나
왕립도서관	3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기타	3	북한 등



〈그림 1〉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 성격

〈표 2〉 국가도서관 개념의 차원과 지향성

차원	개발정도	주요고객	전략적 주안점(지향성)	유형
지식문화유산	고전적 선진국	학자/연구자	장서(문화유산)	전통적 국가도서관
지식정보인프라	현대 선진국	도서관	국가적 리더십	현대 국가도서관
포괄적 서비스	개발도상국	국민	서비스 제공	국가도서관 서비스

지향성은 현대의 대다수 국가도서관에 해당하며, 지역도서관을 위한 역할증대에 치중한다. 셋째는 모든 국민을 봉사대상으로 설정하여 포괄적인 국가서비스(최종 이용자를 위한 제공서비스)를 강조하는 차원으로서, 주로 개도국이

주력하는 지향성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다수 국가도서관은 그 우선순위, 비중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지라도 상술한 지식문화유산의 수집·보존, 도서관 및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제공, 포괄적인 대국민 서비스

에 진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Olson이 주장한 국가도서관의 전제조건인 4대 기능, 즉 국내 인쇄자료의 레포지터리, 국가서지센터, 외국자료의 포괄적인 수집,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 소급자료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1996, 1). 이러한 사실은 2002년에 Ambrožič 등(2003)이 유럽의 21개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재 책임지고 있는 핵심기능, 향후 우선해야 할 핵심기능, 그리고 계속 평가되어야 할 핵심기능의 순위를 조사·집계한 <표 3>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납본을 전제로 자국 출판물의 3A(Acquisition, Archiving, Access)에 충실할 때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구심체로서, 접근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지식정보서비스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LC는 국가도서관인 동시에 국회의 연구기관, 저

작권 관리기관, 학술연구정보센터, 고교생 이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 및 사법부를 위한 정부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우수한 법률도서관, 국내외 문화프로그램의 후원기관, 자료보존연구센터, 세계 최대의 서지기관 및 시청각자료보존소 등으로 회자되고 있다. 영국의 BL도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 및 정보기관 지원센터, 국가서지센터, 세계 문헌제공센터 등의 위상을 자랑한다. 독일 연방의 국가도서관(DEZ : Die Deutsche Bibliothek)은 국가 중앙자료보존도서관, 음악자료보존도서관, 국가서지센터, 대중을 위한 참고도서관, 문헌복원 및 보존센터, 도서 및 활자 박물관 등으로, 일본의 NDL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센터, 시각장애자서비스센터, 세계 최대의 동양학 자료센터로 공인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국가장서의 구축·보존과 그것에 대한 만인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국가도서관의

<표 3> 국가도서관의 핵심기능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성

현재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능	응답수 (%)	향후 우선해야 할 핵심기능	응답수 (%)	계속 평가되어야 할 핵심기능	응답수 (%)
국가서지센터	16(76.2)	국가 보존장서 구축	10(47.6)	국가서지센터	16(76.2)
사본 보존	13(61.9)	국가서지센터	9(42.9)	납본도서관	15(71.4)
납본	10(47.6)	납본	8(38.1)	국가서지의 생산	15(71.4)
표준번호(ISBN 등) 관리	5(23.8)	국가 문화유산 수집	7(33.3)	사본(회귀문헌) 수집과 보존	15(71.4)
국가참고봉사센터	4(19.0)	자료보존과 디지털화	7(33.3)	서지DB의 개발과 유지	14(66.7)
종합(분담)목록	4(19.0)	사서직 국가센터	4(19.0)	도서관 자동화와 디지털화	13(61.9)
문헌정보학 연구개발센터	3(14.3)	도서관통계 관리	3(14.3)	문화유산 수집 및 보존센터	12(57.1)
도서관네트워크 개발센터	2(9.5)	도서관 이용 촉진	2(9.5)	국가문헌의 색인 작성	9(42.9)
도서관 상호대차(ILL)	1(4.8)	대표적인 외국자료의 수집	2(9.5)	국가참고센터	9(42.9)
국가차원의 프로젝트 수행	1(4.8)	국가도서관 인프라 조정	2(9.5)	국가 아카이브	9(42.9)
계속교육훈련센터	1(4.8)	사서의 교육과 훈련	2(9.5)	도서관 및 사서직의 발전	8(38.1)
·		·		·	
·		·		·	

양대 공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 결과로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이 내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지식정보(문화유산)의 보고'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선례가 없는, 국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현존하는 세계의 국가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림 2>에 도시한 것처럼 한국에서 생산된 지식정보(출판물)의 망라적 수집·보존·전수를 중핵기능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서지의 발간과 배포, 도서관·정보서비스의 제공, 전문직의 교육과 훈련, 도서관·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국제적 교류·협력,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제대로 수행할 때 중장기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2005, 16-17)에서 제시한 '지식정보(기록문화유산)의 보고, 지식정보 유통관리·제공서비스 센터, 도서관·정보시스템 연구개발의 허브, 국내외의 도서관 교류·협력의 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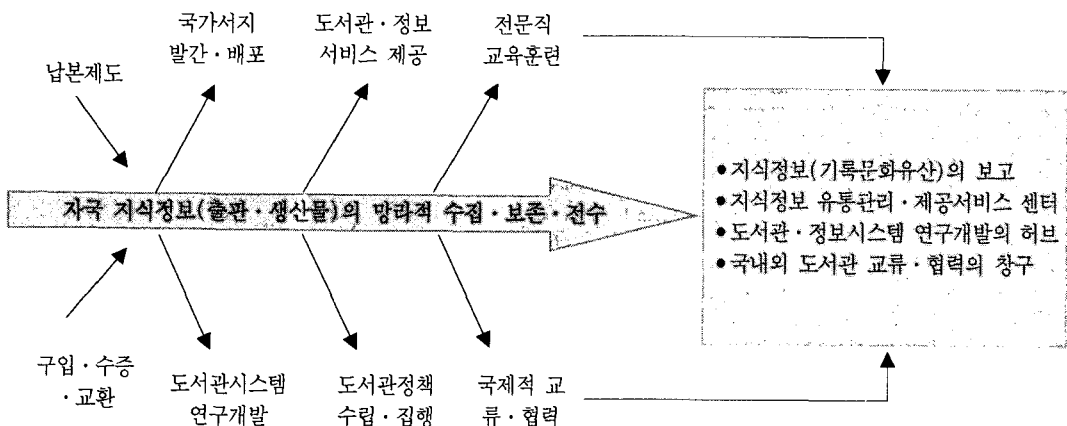
라는 4대 목표(핵심가치)를 위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하고 주요 기능을 분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복안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거점형 분관건립이라 할 수 있다.

3.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분석

3.1 영국 국립도서관(BL)

(1) 국가도서관의 역사와 발전

영국은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대도서관을 탄생시킨 국가이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독립된 건물의 국가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1753년에 제정된 「박물관법」에 근거하여 런던에 세계 최초의 국립 대영박물관이 설립되고 하부조직으로서의 대영박물관 도서관부문(Library Departments of the Brit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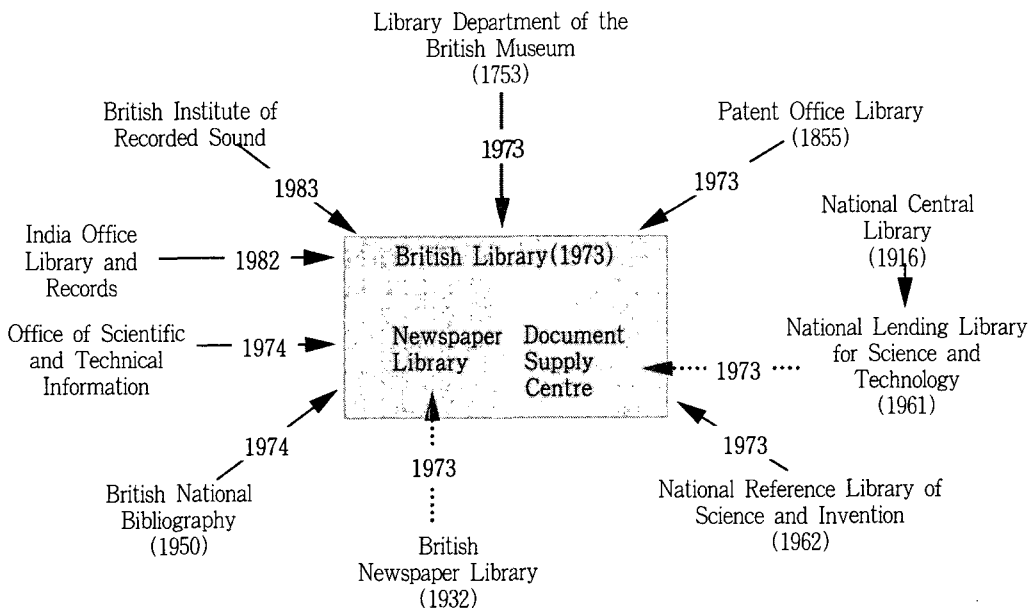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Museum)이 설치되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자료구입과 수증에 이어 1757년에는 구왕실문고(The Old Royal Library)가, 1823년에는 조지 3세의 문고(King George III's Library)가 장서에 편입되었으며, 1842년에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납본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장서가 급증하게 되자 대영박물관은 소장자료의 분산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1887년에는 자연과학 표본류를 자연과학박물관(The Natural Science Museum)으로, 1932년에는 신문을 런던 콜린데일(Colindale)에 위치한 신문도서관(The Newspaper Library)으로, 회화를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로 이전하는 등 분야별 분관체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1916년에는 'Central Library for Students'(National Central Library의 전신)가 설립되었

고, 1949년에는 영국국가서지국(BNB :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이, 1962년에는 국립과학기술대출도서관(NLLST : 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이 건립되어 각각 도서관 활동을 시작하였다. 1885년에 설립된 특허청도서관(Patent Office Library)은 1966년 대영박물관에 흡수되어 국립과학발명참고도서관(NRLSI : National Reference Library for Science and Invention) 내에 설치됨으로써 과학분야의 자료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산정책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국립도서관의 난립과 자료분산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비판하였다. 그래서 1969년에 Frederick Dain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제출한 보고서, 일명 'Dainton Report'와 1971년 국가도서관 설립을 권고하는 백서(White Paper)에 근거하여 1972년 「영국



〈그림 3〉 영국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역사적 통합 및 구성과정

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이 제정되었고 1973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현재의 국가도서관이 등장하였다. 1972년에 법률 제54호로 제정된 「영국도서관법」 제3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림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대영박물관도서관을 비롯한 NRLSI와 NLLST가 기능적으로 BL에 통합되었고, 다시 1974년에는 BNB와 OSTI(Offic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가 흡수되어 대영도서관이 탄생하였으며, 이어 1982년에는 'India Office Library and Records'가, 1983년에는 'National Sound Archive'의 전신인 'British Institute of Recorded Sound'가 국가도서관시스템에 편입되었다(<http://www.bl.uk/about/history.html>). 그리고 1997년에는 서고와 도서관 기능을 완전히 독립시킨 대영도서관 신관이 St. Pancras에 신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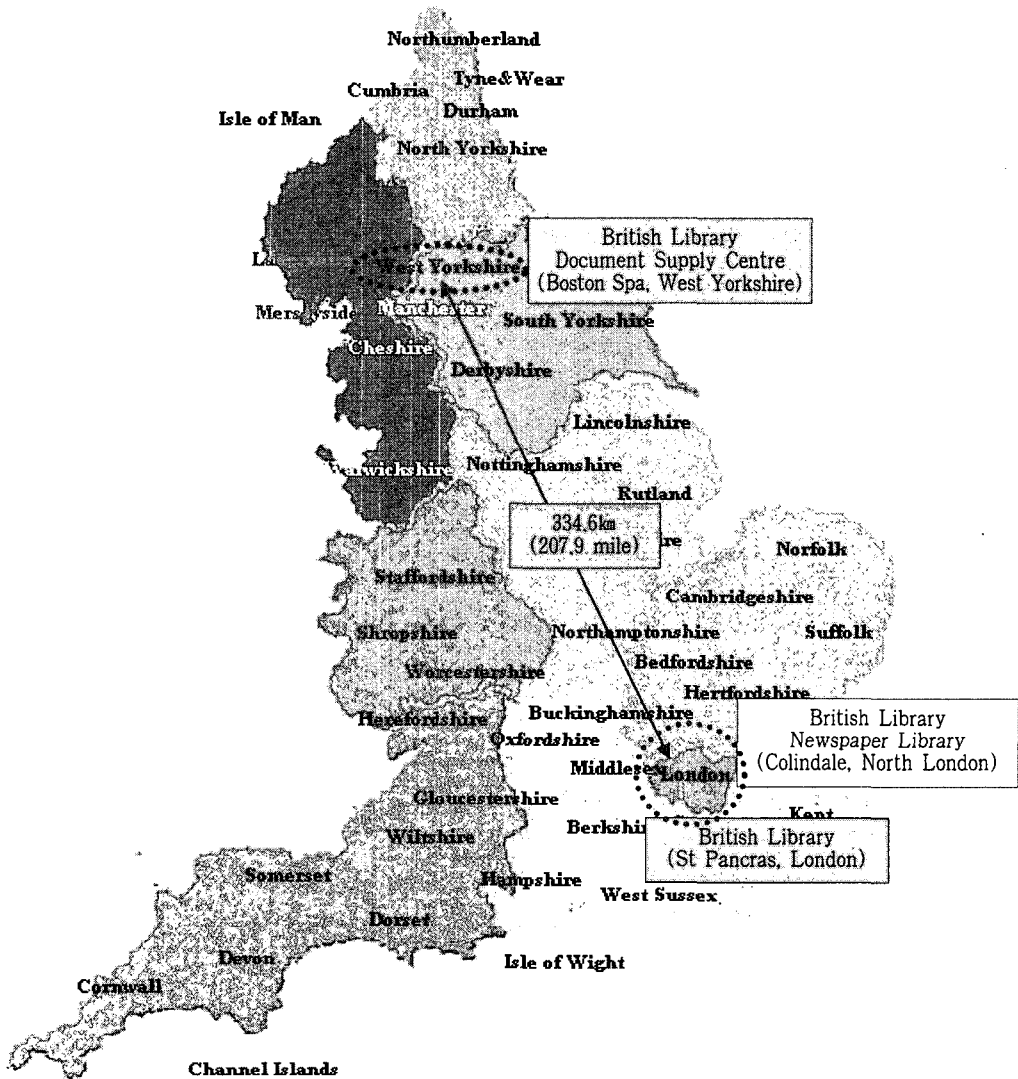
이러한 분화 및 통합의 과정을 거친 BL은 그 규모나 봉사면에서 지구상에 실재하는 모든 국가도서관 가운데 가장 방대한 지식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인류의 궤적과 문명사를 상징하는 약 15,000만점 이상의 귀중한 기록문화가 수장되어 있는데 마그나 칼타(Magna Carta),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수고, 타임지의 초판(1788년), 비틀즈(Beatles)의 육필악보 원본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서 BL은 고대의 역사문서에서 최근의 학술정보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생산한 지식정보의 국제적 보고이다. 2005년 3월말 현재 BL의 소장자료는 1억만건에 육박하며, 연간 수집량도 50만건에 달한다(BL 2004-2005). 특히 '한 지붕 아래(under one roof)'라는 슬로건 하에 도처에서 생산되는 거

의 모든 과학기술 및 특허자료를 수집함으로써 STB(Science, Technology, and Business) 분야의 고품질 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에 속한다(<http://www.bl.uk/collections/science.html>).

(2) 국가도서관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BL은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그것을 핵심자원으로 삼아 자국 내의 모든 이용계층을 봉사대상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보 요구자에게도 원격대출 및 원문제공봉사(DDS)를 실시하는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7월에는 「Redefining the Library」라는 제하의 새로운 중기 전략을 제시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이용자 경험의 풍부성, 디지털 연구환경의 조성, 탐색 및 네비게이션 기능의 제고, 국가장서의 확충, 국민의 계몽,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증으로 집약한 바 있다(BL 2005).

그러나 영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그 역사가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도서관이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통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도서관이 위치하는 지리적 측면과 기능·관리적 측면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문화·매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관할 하에 있는 현행 국가도서관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3개관 체제(BL-NL-DSC)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 영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 구성

가. The British Library(St. Pancras, London)

이 도서관은 인구에 회자되는 대영도서관을 의미하며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건물이다. 1998년 6월 대영박물관에 인접한 St. Pancras 지역의 약 38,000㎡ 부지에 지상 9층,

지하 5층으로 건설되었으며, 연면적이 무려 112,643㎡에 달한다. 지하층은 서고용도로 1,200만권을 보존할 수 있으며, 지상층은 다양한 규모의 다목적 사무용 및 열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신축과 동시에 대영박물관도서관에 집적되어 있던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귀중서(사본, 초판 인쇄본)가 소장되어 있다. 영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11개의 열람실은 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자료실의 경우도 다른 도서관에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나. The British Library Newspaper Library(Colindale, London)

이 신문도서관은 1905년 북런던 교외의 콜린데일에 신문보존소(Newspaper Repository)가 설립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인 1820년대까지는 영국박물관이 신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으나, 수장공간이 부족하여 1900년에 「British Museum Bill」을 제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신문보존소를 신축함으로써 런던신문과 해외신문을 제외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종합보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40년 10월 20일 폭격으로 보존소가 파괴된 후에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1950년에 2개의 임시 보존소가 신축되고 1971에 마이크로자료 보존건물이 추가로 건설되어 보존기능을 수행하다가 1973년에 대영박물관의 다른 부서와 함께 국가도서관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도서관의 자료는 18세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용자에게만 개방되며, 다양한 형태(인쇄물, 마이크로, CD-ROM, 웹포맷)로 국내외 신문을 이용할 수 있다.

다. 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Boston Spa, Yorkshire)
이 센터는 1916년부터 런던에서 운영되었던

NCL과 1961년 이래로 보스턴 스파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NLLST가 1973년에 BLLD로 통합되고 1985년에 그 명칭을 BLDSC로 개칭한 것이다. 아마도 영국 국립도서관이 다른 나라의 국가도서관보다 강점을 유지하고 우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BLDSC 때문일 것이다. 이 센터는 비록 런던의 중앙관과는 무려 334.6km나 떨어져 있음에도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여러 하부조직 중에서 가장 방대하게 수집·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정보(약 26만종의 잡지, 300만권 이상의 도서, 50만건의 회의 자료, 약 500만건에 달하는 보고서 등)를 중심으로 약 2만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에게 연간 약 400만건의 상호대차 및 문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2 독일 국가도서관(DEZ)

(1) 국가도서관의 성립과 발전

독일은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13개는 광역주, 3개는 도시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그 시스템적 특징은 지방분권화를 요체로 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공공사무가 주정부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분권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연방정부의 기본법은 특히 문화주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교육 및 문화행정을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요컨대 지자체의 교육 및 문화행정에는 문화주권과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을, 재정 지원에는 유럽통합의 원리로도 간주되는 보완성 원리(complementarity principle)²⁾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片山 泰輔 2003, 48-49).

이러한 역사적 및 행정적 특징은 독일의 도서관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연방정부·주정부·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받고 있다(Blume & Kempf 2002). 연방정부는 국가도서관 외에 연방의회도서관 및 연방정부 부처연구소 등의 도서관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주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지자체는 시·읍·면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을 유지하는 주체로는 교회, 학·협회, 재단, 기업 등이 있고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설치한 도서관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관중(공공, 대학, 특수, 학교 등)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소위 39개의 지역도서관(regional libraries)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들의 역사적 기원은 각주에 설립된 주립 및 왕립도서관이며, 대다수는 주립도서관(Landesbibliotheken 또는 Staatsbibliotheken) 내지 시립도서관(Stadt-bibliothek)으로 지칭된다. 각각 주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며, 왕립·법정부속·도시의 도서관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다(Thun 1999,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국가도서관 역사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 및 연구도서관은 유럽 국가 중에서 비교적 일찍 발달하였지만, 19세기 독일사가 반증하듯이 정치적 격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장서를 집합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자국에서 생산된 지

식정보는 여러 지역의 도서관에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전쟁의 결과로 해외로 산실되기도 하였다.

이미 1848년에 국가도서관의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자료는 계속해서 누른버그(Nürnberg)의 독일국립박물관(German National Museum)에 축적되었다. 그러다가 1912년에 'Kingdom of Saxony'와 독일서적조합회(Society of German book-dealers)가 라이프찌히시의 북페어 자리에 국가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1913년 1월 1일부터 독일어로 출판된 모든 자료(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자료도 포함)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에 Gustav Wahl이 초대 관장에 취임하였다. Oskar Pusch가 설계한 동부지역의 라이프찌히 국가도서관(DBL: Deutsche Bücherei, Leipzig)의 본관은 1914에 공사를 시작하여 1916년 10월 19일에 개관하고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연합군(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이 독일 전역을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게 됨에 따라 서독의 입장에서 라이프찌히 국가도서관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서부지역의 도서관과 서적조합단체는 국가도서관 설립을 위한 노력을 프랑크푸르트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1947년에 탄생한 또 하나의 국가도서관이 14,000건의 자료로 출발한 프랑크푸르트 국가도서관(DBF: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m Main)³⁾

-
- 2) EU통합의 원리로도 간주되는 '보완성의 원리'는 공공서비스 소요재원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단위(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상위 또는 광역의 행정단위(주정부, 중앙정부)가 보완하는 원리로서, 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 3) 처음에는 서방측 점령지구를 위한 중앙도서관으로 출발하였으나, 1969년에 연방기관으로 편입되어 국가도서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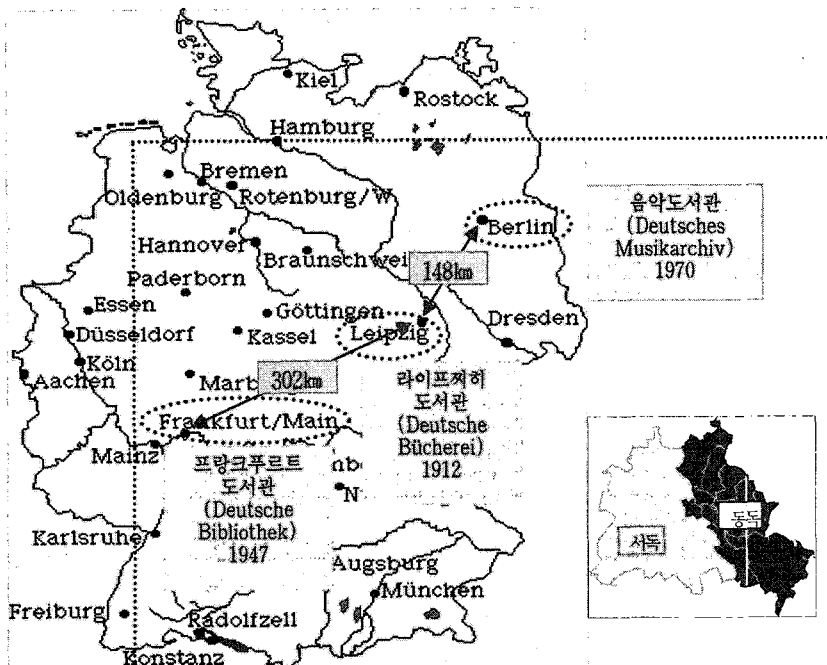
이다. 이어 1970년 1월 1일자로 DBF 별관으로서의 독일음악자료관(DMB : Deutsches Musikarchiv, Berlin)이 베를린에 설립됨으로써 3개의 국가도서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됨으로써 분산·개별형 도서관 시스템도 독일국가도서관(DDB)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말을 기준으로 단행본 2,220만권, 잡지 11만종 등을 소장하고 있다.

(2)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개편과 특징

독일의 경우, 현대 자료를 위한 국가서지센터 및 레포지터리로서의 국가도서관은 존재하였지만, 자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소장하는 국가보존센터로 간주될 정도로 통시적 자료를 소장하는 단일의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환언하면 독일의 국가도서관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중앙관을 구심체로 하여 지역관(주제관) 내지 분관으로 형성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3개관(라이프찌히의 Deutsche Bücherei, 프랑크푸르트의 Deutsche Bibliothek, 베를린의 Deutsches Musikarchiv)이 상호협력을 하되, 독립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 이유는 분단국가라는 역사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분단독일의 통일을 앞둔 시점인 1990년 8월 31일자로 통일조약(Unification Treaty)이 제정되었고, 이 조약에 따라 동년 9월 23일 'BGBI. IIS. 885호'로 「국가도서관법」(Gesetz über die Deutsche Bibliothek, 총 3장 26개조)이 제정됨으로써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개의 국가도서관이 'DDB' 아래로 통합되었다. 현재 독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그림 5>와 같이



<그림 5> 독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 구성

서부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DBF를 중앙관으로 하고, 동쪽으로 약 302km 떨어진 라이프찌히의 DBL는 문학분야를, 다시 148km 떨어진 베를린의 DMB를 음악분야의 주제관으로 하는 3개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 3개관을 합하여 독일국립도서관(DDB)으로 칭하며 「국가도서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문화매체부 소관 하에 있다. 이들은 자국의 모든 출판물 및 독일어로 발간된 자료의 수집과 장기보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서지를 발간한다. 또한 공공 및 학술도서관, 도서 판매자, 연구기관, 외국서지센터를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Lux 2003, 117-118 : http://www.ddb.de/index_e.htm).

가. Deutsche Bibliothek(Frankfurt am Main)

DBF는 독일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앙관인 동시에 서지정보센터, 납본도서관이다. 따라서 1913년 이래로 국내 출판물과 독일어로 출판된 모든 자료의 수집·정리·서지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독일의 모든 출판사는 자비로 2부를 납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도서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과 관련된 각종 규정과 기준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 인프라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앙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관리도 포함된다. 그러나 매일 1,200건의 신간이 추가되고 연간 30만건 이상이 장서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수장공간이 부족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복수의 국가도서관을 기능적으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취약하며, 새로운 정

보매체의 첨단 이용관을 설치하거나 ATM 통신망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강화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1997년 약 2억 5천마르크(약 1,500억원)를 투입하여 신축하였다. 이 신관의 규모는 부지면적이 19,000㎡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48,000㎡이다. 도서관 광장 아래는 본관과 터널로 연결된 지하서고가 있는데 자료수장력은 약 1,800만권(평면적 30,000㎡)이며, 미래의 확장가능성을 대비하여 약 600만권을 더 수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나. Deutsche Bücherei(Leipzig)

DBL은 독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 가운데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통합되기 전까지는 독일(동독)의 납본도서관과 국가인쇄출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1931년에 출판된 독일국가서지의 초판을 발행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하여 1913년 이래로 DBL은 거의 완벽하게 국가장서를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3개관 중에서 가장 방대하다. 2004년에 309,194건을 수집한 DBL의 총자료수는 13,241,332건에 달하는 반면에 DBF는 299,897건이 추가되어 총 8,961,969건이며, DMB는 약 120만건의 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다. Deutsches Musikarchiv(Berlin)

이 독일음악아카이브(German Music Archives)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음악자료(악보, 음반, 예술자료 등)의 국가보존소인 동시에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도서관법」 제18조는 납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의 음악출판사와

레코드 제작자는 2부를 납본해야 하며, 그 중에서 1부는 자체 등록·보존하고 나머지 1부는 DBL로 이송·보존된다.

3.3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1) 국가도서관의 기원과 발전

프랑스의 국가도서관은 1368년 찰스 5세(Charles V, 1338-1380)의 개인서재를 루브르 궁전(Louvre Palace)으로 이관하여 왕실사서로 임명된 말레(G. Malet)로 하여금 도서목록(917권)을 작성하게 하고 궁전 내의 3개 방에 나누어서 보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찰스 7세의 아들인 루이 11세(Louis XI, 1423-1483)와 그의 후계자 찰스 8세(Charles VIII, 1483-1493)가 장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여러 왕실도서관을 거쳐 1537년에는 프랑스와 1세(François I)가 납본에 관한 국왕 칙령(Ordonnance de Montpellier)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납본제도가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장서증가의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가장 번성한 시기는 베르사이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을 건립한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 때이다. 그는 도서관을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수상이었던 콜베르(J.B. Colbert, 1619~1683)로 하여금 파리 비비안(Vivienne)의 2개 건물로 왕실자료를 이관하게 한데 이어 자료를 직접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장서는 급증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할 대책이 시급하게 되자 파리 중심가인 리슐리외(Rue de Richelieu)로

이관하고 1721년에 국가도서관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1789년 7월부터 1799년 11월까지 약 10년간 절대왕정의 구제도(앙시앵레짐)를 타파하고 자유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행된 시민혁명(bourgeois-revolution), 즉 프랑스 혁명으로 왕립도서관은 국가소유가 되었고 납본제도는 3년간 중단되었으며, 개인 및 종교기관의 도서관과 자료는 국가재산으로 귀속되었다. 그 중에는 루이 16세, 마리 앙투와네뜨(Marie-Antoinette), 그리고 마담 엘리자베스의 개인 서고에 소장되어 있던 25만권의 도서, 14만권의 수사본, 8만 5천여 판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피한 귀족계층의 개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수천 권을 압수하여 국가도서관에 편입시켰으며, 시민혁명에 이어 나폴레옹 군대의 국내의 도서관탈로 BnF의 장서는 계속 증가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수장공간의 부족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자 1858년에 건축가 라브루스뜨(H. Labrousse)의 감독 아래 새로운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신축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프랑스는 국가도서관의 공간을 확장하는데 더욱 치중하였다. 1934년에는 아르스날 도서관(Bibliothèque de l'Arsenal)을 국립도서관에 편입시켰고, 리슐리외 건물도 계속 확장되어 목록실, 서지실, 간행물실, 동양서적실, 음악자료실이 차례로 갖추어졌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대한 국가장서를 관리하고 급증하는 인쇄물을 수용하여 국민의 다양한 지식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립도서관의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실제적 논의는 1988년 미테랑(F. Mitterrand)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본격화되었다. 1988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연례방송에서 미테랑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하였고, 신예 건축가인 페로(D. Perrault)의 설계로 노트르담 동남쪽의 톨비악(Tolbiac) 지역에 총 78억 프랑을 투입하여 1992년 3월 착공하였고 1996년 12월에 일반열람실이, 1998년 가을에는 연구도서관이 개관하였다. 1998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세느 강변 약 75,000㎡에 달하는 거대한 대지 위에 위용을 드러낸 '프랑스 국립도서관(미테랑 도서관)'은 20층 높이의 4개 도서관이 책모양(L자형)을 하고 있다. 건물 바닥의 연면적은 365,178㎡(건물 외부의 총면적 290,000㎡)이며, 총 이용면적이 159,855㎡(서고면적 81,00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국가도서관 중의 하나이다.

(2)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과 특징

프랑스의 현행 국가도서관시스템은 1993년 벨라발(P. Béval)이 제출한 위원회 보고서가 그 직접적인 출발점이다. 이에 근거하여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투봉(Jacques Toubon)이 국립도서관(BN)과 프랑스 도서관(Bibliothèque de France)을 단일의 건물로 합병할 것을 결정하고 1994년 1월 3일자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설립에 관한 정령」(Décret no 94-3 du 3 janvier 1994 portant créatio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을 공포함으로써 제22조(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가도서관 및 공적 자금으로 설립된 국가소유의 도서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대신한다)에 따라 동년 1월 4일자로 새로운 국립도서관(BnF)이 출범하였다.

프랑스의 중앙부처 가운데 문화통신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⁴⁾(산하의 '도서·독서국')가 관할하는 국가도서관시스템은 <그림 6>처럼 7개 사이트에 5개의 일반도서관(The François Mitterrand/Tolbiac Library, The Richelieu Library, The Bibliothèque de l' Arsenal, The Library Museum of the Opera, The House Jean Vilar)과 2개의 보존도서관(Bussy saint-Georges, Joël-Le-Theule)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역사와 위치, 기능과 특징, 장서 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The François Mitterrand/Tolbiac Library(Paris)

프랑스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앙관에 해당하는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은 낡은도서관으로서 파리 동쪽 톨비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연면적은 약 29만㎡에 달하며 마주 보는 4개 건물의 가운데에 정원이 있다. 서고 수장능력은 1,200만권이며 서가의 총 길이는 395km에 달한다. 기존의 국립도서관(BN)과 리슐리외 도서관의 소장자료 중에서 인쇄본과 잡지를 이관받아 축적한 미테랑 도서관은 일반자료실에 해당하는 참고도서관(Haut-de-jardin)과 학술자료실인 연구도서관(Rez-de-jardin)으로 대별된다. 총 7개의 열람실(철학·역사·인문, 문학·예술, 과학·기술, 법률·경제·정치, 시청각, 회귀도서, 서지연구)로 구성된 전 자에는 다양한 자료(도서 28만권, 잡지 3,500종, 마이크로자료 30만 이상, 지도 6,000점, 필

4) 이 부처는 1957년의 문화사업부를 시작으로 문화환경부, 교육문화부 등의 명칭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메달·골동품 52만점 등) 위주로 소장하고 있다. 건물의 내부는 7개 부문(필사본, 지도·설계, 사본·사진, 동전·메달·골동품, 음악, 공연예술, 서지연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에 산재하는 주요한 예술사 전문도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국립예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다. The Bibliotheque de l'Arsenal(Paris)
1797년에 설립된 아스날 도서관은 18세기 중엽에 아스날의 도서 애호가였던 다르장송(Antoine-René d'Argenson)의 개인장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 혁명때 국가소유로 몰수당하였고 1797년에 공공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하였으며, 1926년 국가도서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1934년에 국립도서관에 합병되었고 1977년에 국가도서관시스템의 단위조직으로 격상되었다. 그 이후의 자료수집은 문학과 예술, 도서의 역사 등에 치중하였다.

라. Bibliothèque-Musée de l'Opéra(Paris)
이 오페라 도서관-박물관은 파리오페라(Opera of Paris)의 전신인 프랑스 왕립음악원(Royal Academy of Music)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1866년에 와서야 '오페라의 도서관 및 파일'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고 1935년에 국립도서관에 편입되었으며, 1942년에 국립도서관의 독자적인 음악부서로 승격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악보의 납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파리 국립오페라 내에 위치하며 악보(인쇄본, 필사본), 도서, 정기간행물, 고문서, 프로그램, 포스터 등 음악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다.

마. La Maison Jean-Vilar(Avignon)

1972년 2월에 아비뇽 소재의 대중 국립극단 창시자인 장 빌라르(Jean Vilar)의 무대작품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아비뇽시의 연극제를 발전시킬 의도로 장 빌라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협회가 발족하였다. 이 협회와 아비뇽시 및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공연예술부는 'House Jean Vila'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1977년에 아비뇽시가 'Hotel of Crochans'를 인수하였다. 이 호텔을 개조한 장 빌라르관은 1979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아비뇽 분관으로 개관함으로써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이 분관의 성격은 '인쇄본 및 비디오 도서관'이며, 개관 이래로 다양한 공연예술(연극, 무용, 마임, 뮤지컬, 인형극, 서커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페스티벌 등)에 관한 도서, 정기간행물, 프로그램, 아카이브, 사진, 포스터, 무대영상,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보존하여 왔으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의 만남, 전시회 등의 문화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 빌라르관이 수집한 자료는 인쇄본이 2만종, 정기간행물이 500종, 신문기사가 40,500건, 포스터와 사진이 각각 1만건, 의상 및 장식품이 2,500종, 비디오가 1,050개, 음반이 120매 등이다.

바. Bussy Saint-Georges Technical Centre

이 기술센터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뷔시 생 조르쥬(Bussy-Saint-Georges)에 위치하는 국립도서관의 지역보존관으로서, 주로 희귀한 인쇄형 및 시청각 문서를 관리·

보존하고 있다. 소장된 문서자료는 높이 10m 단위로 축적되어 있고 마이크로화, 원형복원, 소독처리 등의 방법으로 보존 또는 복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자료를 이관 받아 처리·보존하며, 다른 도서관의 과학적 및 기술적 보존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사. Joël Le Theule Conservation Centre
(Sablé sur Sarthe)

이 보존센터는 파리에서 서남쪽으로 약 300 km 떨어진 맨느(Maine)와 앙쥬(Anjou)의 끝 자락에 있는 18세기의 성(Castle of Sanded)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성은 20세기 초에 공장으로 개조되었으나, 1978년에 사블레시가 국립도서관의 문서보존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다시 매입하였으며, 이를 주도한 당시의 '조엘 르 텔'(Joël Le Theule) 시장의 이름을 붙여 보존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1979년부터 국립도서관 인쇄자료부의 손상된 문헌을 마이크로화, 대량 탈산, 전통적 복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보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마이크로화 작업량은 연간 20만권(500만 페이지)에 달한다.

3.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

(1) 국가도서관의 원류와 발전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두 갈래의 원류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그 하나는 1872년(명치 5년)에 설립된 문부성 소속의 제국도서관(당시는 서적관)이고 다른 하나는 1890년(명치 23년)에 개설된 구 헌법하의 제국의회에 소속된 양원(貴族院, 衆議院)의 부속도서관이다. 그

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국회 내에서는 민주적인 입법과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1947년 4월 30일자로 「국회법」(법률 제49호)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양원의 의장은 국회도서관법 제정 및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문가 파견을 연합국 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에 요청하였고, 1947년말 미국 도서관 사절(US Library Mission) 대표로 의회도서관의 부관장 클랩(V. W. Clapp)과 도서관협회의 브라운(C.H. Brown)이 방일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1948년 12월 9일자로 「국회도서관법」(법률 제5호)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 근거하여 미국 의회도서관처럼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병행하는 '국립국회도서관'이 개관하였다.

한편,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법」과 동시에 공포된 「국립국회도서관건축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인접한 장소에 신청사 건설에 착수하였다. 국회 의사당 북쪽의 구 독일대사관 부지에 건설된 신관(동경 본관)은 1961년 8월에 제1기 공사를 완료하고 구 赤坂離宮(제국도서관의 후신이자 支部上野図書館의 전신)의 본관(납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약 100만권과 2차 세계대전 전의 수집분을 소장한 上野図書館(1947년에 제국도서관에서 개칭)의 약 100만권을 합한 총 205만권을 가지고 동년 11월 1일에 국가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1961년에 시작된 국립국회도서관 신관(동경 본관)

공사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구 참모본부(현 헌정기념관)의 三宅坂 가청사에 배치되어 있던 국회서비스 부문이 본관으로 이전하였고, 3개 지구(赤坂, 上野, 三宅)에 분산되어 있던 국회도서관의 기능도 최종적으로 통합되었다. 본관은 구 赤坂離宮의 개관 20주년인 1968년에 거대한 건물(지상 6층과 지하 1층의 사무동 및 17층의 서고동)로 완성되었고, 1986년에는 본관 근처에 또 다른 신관(지상 4층과 지하 8층의 서고)을 증축함으로써 1,200만권을 수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에는 동경 본관의 수장공간이 한계에 도달한다는 예측에 따라 관서지방 문화예술연구도시인 교토(京都府 相樂郡 精華町)에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關西館)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2년 6월에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프로젝트를 위한 조사회'가 설치되었고, 1994년 12월에 국립국회도서관건축위원회가 국회에 관서관의 건설을 권고하였다. 1995년도에 관서관 건립과 관련된 비용이 계상되어 건설계획의 사업화가 시작되었고, 1998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4월에 완공하고 동년 9월까지 자료이전을 완료하여 10월 5일에 개관하였다. 요컨대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Kansai library)은 조사회 설치로부터 20년만인 2002년에 개관한 것으로서, 주된 목적은 국가장서의 장기적 수장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신세기 정보사회의 정보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에 구 제국도서관의 후신인 支部上野図書館에 대한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국제어린이도서관'을 부분 개관한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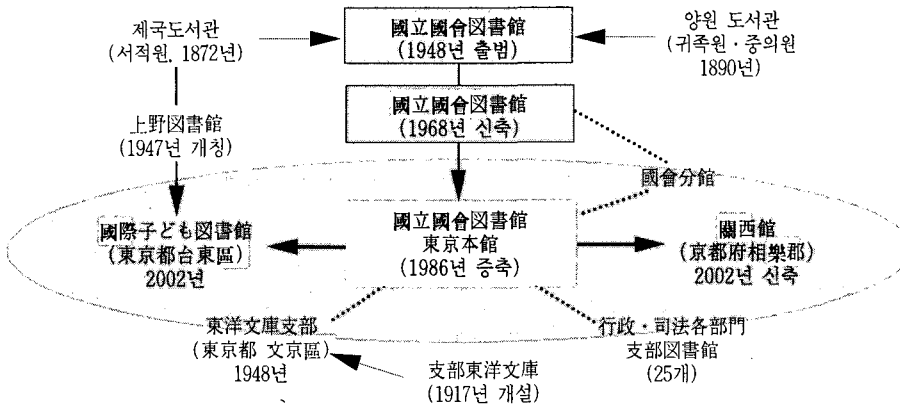
어 2002년 5월에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전면 개관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법」(법률 제102호)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부문에 설치하는 지부도서관 및 그 직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9호) 제1조에 따라 행정부 및 사법기관에 많은 지부도서관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국회 의사당 본관 4층에 국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국회분관'을 두고 있으며, 東京都 文京區에 支部東洋文庫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통합 및 분화과정을 도시하면 <그림 7>과 같다.

(2) 국가도서관시스템의 구성과 특징

일본의 국가도서관은 지난 130년간(1872~2002) 통합과 분화라는 궤적을 그리며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그림 8>에 도시한 것처럼 1872년에 설립된 제국도서관을 모태로 신축과 증축을 거듭한 동경 본관과 2002년에 신축된 관서관이 양대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국제어린이도서관, 국회분관, 그리고 여러 지부도서관(행정기관 부속의 25개관, 지부동양문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위치와 규모, 장서와 기능,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國立國會圖書館 東京館

수도 동경(千代田區 永田町)에 위치하는 국립국회도서관(NDL) 동경 본관은 1948년 이래로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NDL이 모든 국내 출판물



<그림 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통합과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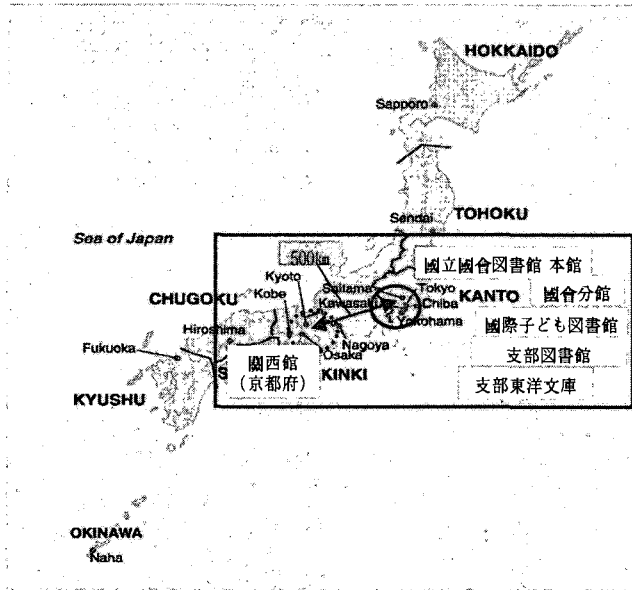
을 납본제도로 수집하고 국가 문화재로 간주하여 영원히 보존하며,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전국서지를 작성하고 국회(국회의원, 국회관계자), 행정 및 사법부(정부의 각 성청 및 최고재판소), 국민(일반 이용자, 공립 및 기타 도서관, 지방의회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현재의 동경 본관은 제1기(1961년) 및 제2기(1968년) 공사로 완성된 것이며, 그 후에 자료와 업무의 증대로 신관 건립에 착수하여 1986년에 서고 일부를 제외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1993년에 완전 개관하였다. 본관은 한 면이 45m에 달하는 정방형인 17층 건물이며, 완전한 중앙서고형이다. 서고동과 사무동을 합산한 본관의 총면적은 73,340㎡이며, 자료수장력은 약 450만권이고 서가의 총연장은 172km에 달한다. 이 본관 건물의 북측에 인접한 신관은 동서로 약 148m, 남북으로 43m인 장방형 건물이며, 본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건축되었다. 건물의 층고는 총 12층(지상 4층과 지하 8층)이고 연면적은 72,942㎡에 달하며, 서고 전용공간인 지하층을 포함한 자료수장력은 총 750만권이

고 서가의 총연장은 240km이다. 따라서 본관과 신관을 합산한 연면적은 148,000㎡(44,770평, 그 중에서 서고공간이 53%)이며, 수장력은 약 1,200권에 달한다. NDL에는 일본도서와 서양도서, 일본잡지, 서양잡지 중 연간물과 단행본 시리즈의 일부, 일본 및 서양신문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각각의 전문자료실에는 연구용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2004년말 현재 NDL은 도서 836만권과 잡지 187천여종(서양잡지 57,858종 포함)을 소장하고 있다(國立國會圖書館 2005, 242-243).

나. 國立國會圖書館 關西館

동경에서 약 500km 떨어진 관서관의 설립배경은 일차적으로 동경 본관의 자료수장력 한계에서 기인하며, 추가로 고도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국가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이래로 제2 NDL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제 건축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토키(陶器 二三雄)의 설계로 일본의 고도인 교토(京都府 相樂郡 精華町)에 관서관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3대



〈그림 8〉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의 구성체계

광역지자체(京都府, 大阪府, 奈良縣)에 걸쳐 정비되고 있는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이며, 그 중심부의 핵심시설로 관서관이 들어선 것이다. 1998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3월에 완공하고 동년 10월 7일에 개관한 NDL의 관서관은 약 37,500㎡의 부지에 총 8층 건물(지상 4층, 지하 4층)로 제1기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연면적은 60,000㎡(18,182평, 그 가운데 지하공간이 약 89%)이고 수장력은 600만권에 달한다. 2050년까지 계속될 제2기 확장계획은 부지면적 약 82,500㎡에 연면적 약 165,000㎡의 규모로 서고의 수장능력을 약 2,000만권의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관서관의 장서는 동경 본관에서 이관해 온 자료(국내 학술서 31만권, 참고도서 5만권, 이용도가 높은 일본잡지 14,000종과 서양잡지 41,000종, 신문 500종, 기술보고서, 해외 박사논문, 학협회 논문, 회의록, 규격, 특허자료, 아시

아자료 등)와 자체 수집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출판물을 납본제도에 의거하여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동경 본관과 달리 과학기술분야의 학술 및 연구자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료유형별 소장현황은 단행본 약 50만권(일본 학술서 중심), 참고도서 약 7만권(국내 관청출판물, 사전·통계 등, 일본의 법령 및 회의자료, 도서관학 자료 등), 잡지 약 77,000종(일본잡지 34,000종, 서양잡지 43,000종), 국내 박사논문 44만건(관동 대지진 이후의 수집분) 등이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자료(기술보고서, 해외의 박사논문·특허자료·회의록, 학협회 논문, 규격), 1983년 이후의 문부과학성 과학연구비보조금에 의한 연구성과보고서(과연비보고서), 1986년 이래로 수집한 아시아 언어 관련 자료(도서, 잡지, 신문, 전자자료(전자잡지, CD-ROM)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일본의 국립조사연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국내외 문헌제공서비스(원문복사, 상호대차)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경 본관의 도서관 협력부가 일괄 처리하던 국내외 각종 도서관(행정부 및 사법부 산하의 지부도서관은 제외)의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를 관서관이 종합적으로 담당하며, 미소장 자료의 경우는 동경 본관과 국제어린이도서관에 의뢰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요컨대 관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의 보존센터, 관서관문화학술연구도시의 정보거점, 국내외 문헌제공서비스(DDS)의 총괄기관이다. 특히 관서관의 DDS 기능은 영국의 'BLDS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아시아의 학술정보 유통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국제어린이도서관(國際子ども図書館)
NDL의 또 다른 지부도서관인 국제어린이도서관(ILCL :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은 1872년에 시작된 제국도서관을 1948년에 上野圖書館으로 개칭하여 사용하던 역사적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개관한 일본 최초의 국립아동전문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동경의 上野公園(台東區) 내의 5,433.76㎡의 부지에 세워진 연면적 6,671.83㎡의 4층(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자료 수장능력은 40만권 정도이다. 2004년말 현재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총 278,999건이다. 구체적으로 도서가 232,302권(일본서 187,230권, 외국서 45,072권), 연속간행물이 1,782종(일본잡지 1,638종, 외국잡지 129종, 신문 15종), 비도서가 31,767점, 전자자료가 148종이다(<http://www.kodomo.go.jp/profile/num/own.html>). 이를 바탕으로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본적 역할은 국내외 도서관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서 및 출판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는데 있다. 부연하면 일본의 어린이를 위한 정보자료센터,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지원,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의 직접 제공,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연대·협력과 국제적 활동 등이다.

라. 행정 및 사법부의 支部圖書館

아마도 전술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 국가도서관시스템과의 매우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설치된 지부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설치근거는 「국립국회도서관법」 제1장(설립 및 목적) 제3조(국립국회도서관은 중앙의 도서관과 더불어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부도서관 및 금후 설립될 지부도서관으로 구성한다)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 및 사법부 각 기관에는 총 25개의 지부도서관을 두고 있다. NDL 본관으로서의 지부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특정 분야의 장서를 유지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소속기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NDL 동경 본관,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각각의 지부도서관에 <표 4>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른 하나는 동경 본관의 납본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국내외 각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은 NDL에 직접 납본되는 것이 아니라 지부도서관으로 송부된다. 따라서 지부도서관은 일정 부수를 자체 보관하고 나머

〈표 4〉 NDL자료 소장관의 지부도서관을 위한 서비스 내용

소장관 \ 서비스	내관 대출	우편 대출	복사 우송	사무용 복사	전자잡지의 사무용 복사	관서관 자료의 동경 본관 이동 서비스
동경 본관	○	○	○	○	○	-
관서관	-	○	○	○	-	○
국제어린도서관	○	○	○	○	-	-

지를 NDL 동경 본관으로 이송한다.

마. 支部東洋文庫

1971년(大正 6년) 三菱合資會社の 이와사끼(岩崎 久彌, 三菱의 三代 当主)가 호주출신으로 중화민국 총통부 고문을 역임한 모리슨(G.E. Morrison)의 장서를 구입하여 설립함으로써 동양문고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수집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1924년에는 동경도의 文京區에 현재의 '재단법인 동양문고'를 설립하고 연구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동양학 전문도서관 겸 연구소가 탄생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동양문고는 관련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일본학자의 연구업적 출판, 동양학 지식의 보급, 국제교류 등을 통하여 동양학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양문고는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1948년에 NDL이 동양문고에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정부(문부과학성), 민간, 해외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유치하였다. 1961년에는 유네스코 동아시아문화연구센터가 부설되었고, 1994년에는 프랑스 국립극동학원(EFEO : The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의 동경지부가 문고 내에 설치되고 프랑스에서 연구원이 파견되어 양국간의 학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동양문고 내의 연구소는 재단법

인이며, 도서관은 NDL 지부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아시아 전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인 동시에 아시아 최대의 동양학 연구 센터이며, 후자는 아시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세계 굴지의 동양학 전문도서관이다. 총 3,688㎡(1,117평)의 부지에 들어선 건물의 연면적은 7,134㎡(2,162평)이며, 그 중에서 서고가 4,091㎡(1,240평)이다. 전체 자료는 약 90만점에 달하며, 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헌(티베트어, 타이어, 아라비아어 등의 언어 자료)과 서양 및 일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국보 5점과 중요 문화재 7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귀중자료(갑골문자편 635건, 중국 지방지 3,000부, 중국족보 860부, 티베트어·문고대장경 13,000점, 14세기 후반에 필사한 코란 등)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과 장서는 동양문고의 소유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지구촌 국가도서관의 성립과정과 발전, 핵심기능과 위상을 기술한 다음에 문화선진국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상에 실존하는 대다수 국가도서관

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영국·미국 등의 시스템을 모방하여 설립·발전하여 왔지만, 강대국 지배에서 독립한 후에는 자국의 국가형태, 정치체제, 행정체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도서관은 '국가가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이고 정부예산으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국의 모든 관중을 대표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납본을 전제로 자국 출판물의 3A(Acquisition, Archiving, Access)에 충실할 때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중심체로서, 접근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지식정보서비스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런던 시내 세인트 판크라스 소재의 국립도서관(BL)과 런던 북부지대의 콜린데일의 신문도서관(NL), 그리고 서부 요크셔지방의 보스턴 스파에 위치한 문헌제공센터(DSC)의 3개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BL이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인 동시에 국가도서관시스템의 중앙관이라면 BLDSC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문헌제공센터이며 시스템상으로는 지역분관에 해당하며, NL은 신문자료 중심의 보존 및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분관이다. 따라서 지리적 양분제의 기반위에 시스템 집중화 및 기능별 차별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독일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다른 선진국과 매우 다른 양태로 발전하여 왔다. 그 하나는 분단국가라는 역사성에서 기인하며, 다른 하나는 세계 고전음악의 중심국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서부의 DBF를 국립중앙

도서관으로 하고, 동부의 DBL은 국가장서보존소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베를린의 DMB를 음악자료 중심의 주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지리적 분산제-시스템적 집중제-기능적 차별화의 발전과정을 거친 것과는 달리, 독일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지리적 양분제-시스템적 집중제-기능별 분담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프랑스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우선 국가도서관을 구성하는 개체수가 매우 많은 다관체제(파리의 4개관, 아비뇽 1개관, 그리고 뷔시 생 조르주와 샤프레의 2개 보존관)를 유지하고 있다. 각각의 단위도서관은 자료를 유형별 및 주제별로 특화(프랑스와 미테랑도서관 : 중앙관으로서 모든 일반자료, 리슐리외도서관 : 특수장서, 아스날 도서관 : 문학·사본·인쇄자료·사진 등, 오페라 도서관·박물관 : 음악자료, 아비뇽 소재의 장 빌라르관 : 공연예술)하여 수집·보존·서비스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2개의 보존전담센터(Bussy Saint-Georges, Joël Le Theule)가 있다. 따라서 프랑스 국가도서관시스템의 특징은 전술한 영국 및 독일과 달리 지리적 분산제-시스템적 집중제-자료의 유형·주제·기능별 분담제로 집약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2개관 체제(동경 본관과 관서관), 봉사대상과 소장자료의 주제를 감안하면 4개관 체제(동경 본관, 교토의 관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지부동양문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수준이나 시스템상으로는 2개관 체제(동경 본관과 관서관)이며, 여러 지부도서관 내지 분관(국제어린이도서관, 국회분관, 행정

부 및 사법부 산하의 지부도서관)은 동경 본관의 하부 조직단위이다. 비록 동경 본관과 관서관을 단일의 기능체로 통합한 국가도서관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동경 본관은 국회·행정부·사법부를 지원하는 기능에 주력하는 국가도서관과 종합형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관서관은 과학기술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일본 국가도서관시스템의 특징은 지리적 양분제-시스템적 집중제-이용대상 및 주제별 분담제로 집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집약한 바와 같이 문화선진국의 국가도서관시스템은 각각의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제적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분산제와 기능(또는 자료유형, 주제)별 분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서울중심의 '완전 집중형'으로 운영하는 국가도서관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연구를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로 삼아 후속논문에서는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기본모형, 운영체계 및 역할분담 모형, 자료보존센터 모형 등)을 제시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國立國會図書館. 2005. 開館3周年を迎えた關西館. 『國立國會図書館月報』, 536: 1-9.
- 國立國會図書館. 1991. 『國立國會図書館關西館(仮称)設立に關する第二次基本構想』策定. 東京: 同館.
- 國立國會図書館. 2004. 『國立國會図書館ビジョン2004』. 東京: 同館.
- 國立國會図書館. 2005. 『國立國會圖書館年報』. 東京: 同館.
- 국립중앙도서관. 2005.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盧荷生. "談國家圖書館之經營." 國家圖書館館刊, 九十二年 第1期(2003, 4), pp. 17-26.
-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編輯委員會編. 圖書館情報學ハンドブック. 東京: 丸善, 1988.
- 岸 美雪. 1999. フランスの地方分權による公共圖書館制度の變遷. 『日仏圖書館情報研究』, 25: 7-13.
- 柳 与志夫. 2001. 英國圖書館政策の再編進む: BLとResource.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260.
- 윤희운. 2004. 독일의 도서관 행정체계 및 법제 분석. 『도서관』, 59(2): 3-34.
- 윤희운. 2002.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스펙트럼과 지향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41-60.
- 李叔玲. 1990. 『英美兩國國家圖書館體制與功能之比較研究』. 臺北: 漢美.
- 張慧銖. 1986. 國家圖書館與資訊服務政策: 馬來西亞與臺灣之比較研究. 『大學圖書館』, 1(1): 79-102.
- 曾雌 裕一. 1987. 西ドイツの圖書館政策をめぐる法的環境. 『現代の圖書館』, 25(1):

- 38-42.
- 陳素娥. 1997. 德國圖書館學與資訊科學教育之探討. 『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館刊』, 3(4): 46-65.
- 片山 泰輔. 2003. “ドイツ東西統一と藝術支援.” *Art Policy & Management*, 19: 48-52.
- Ambrožič, Melita, Vilenka Jakac-Bizjak, and Helena Pečko Mlekuš. 2003. “Performance Evaluation in European National Libraries : State-of-the-Art.” In *The 69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August 1-9, 2003, Berlin, Germany)
- Blume, Eckhard and Klaus Kempf. 2002. “Building & Space Issues : The German Situation and Solutions,” In *Paper for the Annual ALA Meeting* (2002, Atlanta) [online] [cited 2006. 4. 15] <<http://www.goethe.de/uk/ney/alae.htm>>
- British Library. 2005. *Redefining the Library : The British Library's Strategy 2005-2008*. London : British Library.
- British Library. *Thirty-Secon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4-2005*. [online] [cited 2006. 2. 20] <<http://www.bl.uk/about/annual/2004to2005/pdf/statistics.pdf>>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Framework for the Future : Libraries, Learning and Information in the Next Decade*. London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ie Deutsche Bibliothek. “Die Deutsche Bibliothek in Brief.” [online] [cited 2006. 4. 17] <http://www.ddb.de/index_e.htm>
- Fuentes-Romero, J.J. 2004. “National Libraries : Their Position with Regard to Cultural and Ethnic Minorities.” *Alexandria*, 16(1): 49-59.
- Goodrum, Charles A. 1986. “National Libraries,”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2nd ed., edited by R. Wedgeworth, et al. Chicago : ALA.
- Kempf, Klaus. 2005. “Storage Solutions in a Co-operative Library System : The Case of Germany/Bavaria.” *Library Management*, 26(1/2): 79-88.
- Lor, P.J.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 Lux, Claudia. 2003. “The German Library System : Structure and New Developments.” *IFLA Journal*, 29(2): 113-128.
- Olson, Michael P. 1996. *The Odyssey of a German National Library*. Wiesbaden : Harrassowitz.
- Renoult, Daniel. 1999. “Information at th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Liber Quarterly*, 9: 343-351.
- Thun, Hans-Peter. 1999. 『ドイツ連邦共和國における図書館制度の概略』, 三浦 太郎 譯. 東京: 文部省學術情報センター.